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uple's differentiation of self and
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 on marital stability

성심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전 춘 애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박 성 연

Dept. of Home Management, Song Sim Women's Univ.

Lecturer: Chun Ae Jun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

Prof.: Seong Yeon Park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V. 분석 결과 및 논의 |
| III.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 VI. 결론 및 제언 |
|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arital stability as a function of the couple's pattern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

The subjects were 229 couples who have been married for 10 years or less, living in Seoul, and whose father or mother is still aliv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uples which both husband and wife have high differentiation of self showed the highest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couples which both husband and wife have low differentiation of self reported the lowest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2. In general, differentiation of self had more impact on both men's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than women's.

* 본고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부분적으로 발췌, 요약한 것임.

3. The couples which both husband and wife are from highly healthy family-of-origin were found to have the highest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In contrast, the couples which both husband and wife are from highly unhealthy family-of-origin showed the lowest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4. 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 had more impact on men's marital satisfaction than women's, whereas it had more impact on women's marital stability than men's.

5. The married status of husband's parents, the couple's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husband's marital stability, whereas wife's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the predictable variables for wife's marital stability.

I. 서론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족관계가 부부 중심으로 변화하여, 부부의 애정적 기능이 결혼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Skolnick과 Skolnick(1980)에 의하면 부부의 애정적 기능이 강조될수록 결혼 관계 해체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결혼불안정성이 현대 가족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80년을 前後하여 결혼불안정성이나 이혼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때문에 결혼생활에 불만족해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관계를 지속하는 부부들이 많으므로(이동원, 1988), 겉으로 보기에는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의 상태를 측정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혼율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부부의 결혼생활은 Bowen이 제시한 자아분화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Cubberly, 1988; Mee-Gaik, 1991), 자아분화란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족으로부터 개

체화된 정도를 의미한다(Kear, 1978). 따라서 자아분화수준이 낮을 경우 결혼 후 부부간 정서적 융합을 증대시켜 배우자들 사이에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고, 결혼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정서적 이혼 상태에 까지 도달하게 되므로 부부의 결혼안정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자아분화수준은 자신의 출생가족(family of origin)¹⁾에서의 장기간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부부 각자의 출생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출생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은 출생가족 내에 대인관계에 필요한 정서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결혼적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ne, 1988; Couillard, 1990). 유은희(1991)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이 균형있게 발달한 성인 자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함으로써 출생가족이 현재의 부부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은 세대간의 전이에 초점을 맞춘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가족환경의 영향력과 가족관계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이되어 생식가족²⁾을 형성하고 있는 배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인관계 기술의 전

1) 출생가족(family of origin) : 자신이 출생해서 생리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장한 가족을 의미한다.

2)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 : 자신이 결혼하여 형성한 가족을 의미한다.

이를 조사한 연구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Lobdell & Perlman, 1986),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의 개념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족구조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문화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 나라 부부관계, 특히 일반 가족집단에 잘 적용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소수의 결혼안정성 연구들을 살펴보면 Bowen의 가족체계이론과 결혼안정성을 연결시켜 본 연구는 매우 드물며,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인의 자료만을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10년 이내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67.1%라는 통계에 근거하여(통계청, 1991), 결혼지속년수가 10년까지의 부부를 대상으로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³⁾

A. 자아분화수준과 결혼안정성의 관계

1. Bowen의 가족체계이론

오늘날 체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치료이론이 제기되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Bowen(1976)은 가족구성원들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라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으로 구별된다고 한다. Bowen(1978)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아분화는 인간 내부의 자동적 기능을 판장하는 본능적 경향인 “정서적 기능(emotional function)”에서 “지적 기능(intellectual function)”이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즉 개인에게는 정서와 지성이 함께 존재하는데, 지적인 기능이 정서적인 기능에서 분화되지 않은 사람이 자신과 분화수준이 유사한 사람과 결혼하면 서로의 자아가 정서적으로 쉽게 융합되어

처음에는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융합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지속적인 정서적 평형이 유지될 수 없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므로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려 든다. 또한 삼각화를 통해 특정 자녀를 자신들의 문제에 끌어들이며 부모들의 미분화에서 오는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시켜 부모와 자녀는 공생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이로 인해 자녀는 부모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서적 단절의 방법을 사용하고 결국 자녀의 자아분화가 손상을 입게 된다. 이렇게 성장한 자녀는 또 다시 자신과 분화수준이 유사한 사람을 선택하여 결혼함으로써 이미 부모세대에서 경험하였던 과정을 반복하게 되므로 다세대에 걸쳐 이러한 현상이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 관련 선행 연구

부부를 대상으로 자아분화의 구성 개념인 정서적 단절과 부부관계를 조사한 Reifman(1986)은 정서적 단절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부관계에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결혼생활에 더 만족해하는 반면 분화수준이 낮은 부부들은 결혼생활에서 디스트레스와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분화가 결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ubberly, 1988; Mee-Gaik, 1991). 특히 Mee-Gaik(1991)은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아분화수준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고 설명하였으며, 사람들은 자아분화수준이 유사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으로써 세대전이이론을 주장한 Bowen(1978)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B.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과 결혼안정성의 관계

자신이 출생해서 성장한 가족에서 토대가 마련되는 대인관계 기술은 결혼관계의 적응에 중요한 구성

3) 이론적 배경은 지면 관계상 간략히 정리하였음.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Couillard, 1990). Lewis, Beavers, Gossett와 Phillips(1976)는 정서적 건강수준이 높은 출생가족은 자녀가 적응적이고 능력있는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고하였으며, Hovestadt, Fine, Anderson, Piercy 그리고 Cochran(1985) 역시 건강한 가족의 생활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자율감과 친밀감을 제시하였다.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Wilcoxon과 Hovestadt(1985)는 부부 각각의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일치하는 경우 결혼을 지속하려 할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ouillard(1990)에 의하면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부부 모두 높을 때 결혼 적응이 가장 높은 반면 정서적 건강수준이 부부 모두 낮을 때 결혼적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결혼적응은 자신의 출생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에 의해, 남편은 자신과 부인의 출생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의 결혼적응은 부인의 출생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과 연관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Gilligan(1982)는 건강하지 못한 가족배경은 남성보다 여성의 정서적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관련 변인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가족 자산이 있는 경우, 수입자체 보다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수입이 적을 때,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Booth et al., 1984 ; South & Spitze, 1986 ; Heaton & Albrecht, 1991 ; 김태현 · 이성희, 1988).

사회경제적 지위는 결혼안정성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상반된 연구 결과(Huber & Spitze, 1980 ; Glenn & Supancic, 1984 ; 최연실, 1988 ; 김미숙 · 김명자, 1990)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자녀 존재와 종교 역시 결혼안정성에 대해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Glenn & McLanahan, 1982 ; Booth et

al., 1983 ; Hill, 1988 ; Heaton & Albrecht, 1991 ; 이동원, 1988).

부모의 결혼상태와 결혼만족도 또한 결혼안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Booth와 Edwards(1989)는 부모가 불행한 결혼관계에 남아있는 것이 이혼한 경우보다 자녀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편 부모의 결혼을 불행하다고 지각한 성인 자녀들은 행복하다고 지각한 사람들보다 더 낮은 생활만족도와 디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Amato & Booth, 1991).

Ⅲ.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A. 연구모형의 구성

본 연구는 세대간의 전이에 근거한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연결시켜 개인의 배경 변인과 자아분화수준,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1 참조).

B.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연구문제 1 : 자아분화수준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 부부 모두 자아분화수준이 높을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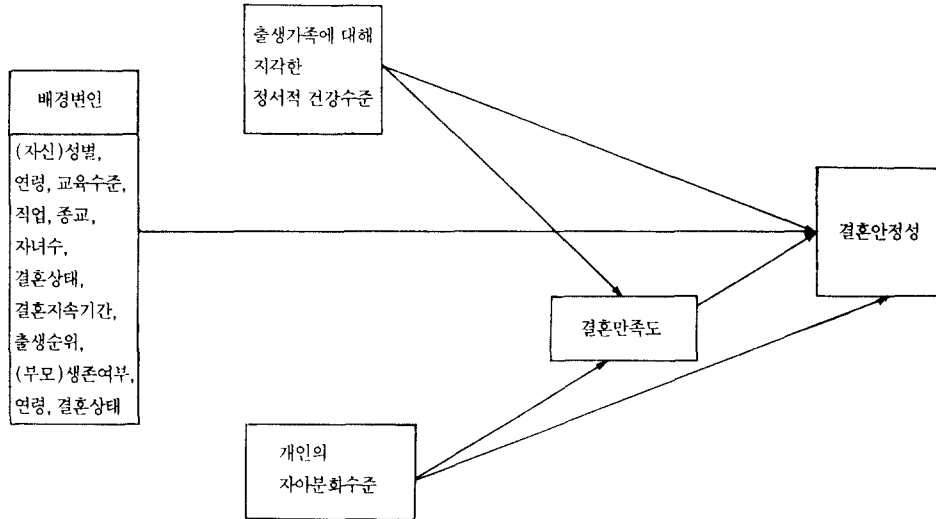
1-2 : 부부 모두 자아분화수준이 낮을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을 것이다.

1-3 : 부부 모두 자아분화수준이 높을 때,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1-4 : 부부 모두 자아분화수준이 낮을 때, 결혼안정성이 가장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2 : 자아분화수준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2-1 : 자아분화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클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2-2 : 자아분화수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클 것이다.

연구문제 3 : 출생가족에 대해 부부가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은 결혼 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 부부 모두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높을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3-2 : 부부 모두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낮을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을 것이다.

3-3 : 부부 모두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높을 때,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3-4 : 부부 모두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낮을 때, 결혼안정성이 가장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4 :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4-1 :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

성보다 여성에게 더 클 것이다.

4-2 :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클 것이다.

연구문제 5 : 배경변인,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 자아분화수준,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C.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1. 자아분화수준 :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구분하는 정도와 자신의 출생가족과 생식가족으로 부터 개체화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2.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 : 자신의 출생가족내에 대인관계에 필요한 친밀감과 자율감이 균형있게 발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3. 결혼만족도 : 결혼생활의 일정한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선호의 정도를 의미한다.

4. 결혼안정성 : 결혼안정성은 부부가 현존하는 결혼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성향의 정도로서 정의된다.

IV.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지속년수가 10년까지의 부부 229쌍으로, 이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남편이 33.08세, 부인이 30.12세였다. 결혼지속개월수는 평균 62.95개월(5.25년)이었고 자녀수는 평균 1.38명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98.7%, 부인은 고졸이상이 97.4%를 차지하였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이 55.9%, 부인은 전업 주부가 전체의 72.1%를 차지하였고, 한 달 총 수입은 평균 약 170만원으로 본 연구 대상은 고학력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중류층임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 부모의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부모가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74.4%, 사별은 23.4%, 별거나 이혼이 2.2%로 나타났다.

B. 척도의 구성

척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자아분화 척도는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제석봉, 1989; Bray et al., 1984)에서 사용된 여러 문항을 수집하거나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문항들로 가척도를 구성하여 가족, 아동, 가족치료학 전공 교수 5명에게 배부하여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전문가의 의견과 점수 결과에 근거해 일부 문항이 제거·수정되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과 결혼만족도 척도는 기존의 척도를 번안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예비조사 결과 일부 문항의 내용이 수정되었고, 우리나라 문화권에 적합하지 않은 것과, 신뢰도를 낮추거나, 각 문항과 각 척도의 전체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유의적이지 못하거나, 주요인 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여 최종척도를 구성하였다.

1. 자아분화 척도

Bowen 이론의 8개 주요 구성개념(자아분화, 삼각화, 핵가족 정서과정, 가족투사과정, 다세대 전이과정, 출생순위, 정서적 단절, 사회 정서적 과정)은 서로 연동적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념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Garfinkel, 1980; 제석봉, 1989). 따라서 Bowen의 8가지 개념 중 상호 연동적이고 중복적인 개념은 제외시키고 자아분화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신내적 분화, 대인관계적 분화, 삼각화, 정서적 단절의 4개 구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총 51개 문항으로 자아분화의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이다.

2.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 척도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 척도는 Hovestadt 와 그의 동료들(1985)이 제작한 Family-of-Origin Scale(FOS)을 근거로 하여 총 28개 문항으로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이다.

3. 결혼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만족도 척도는 Roach와 그의 동료들이 만든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이다. 예비조사 결과 앞서 제시한 방법으로 문항 14개를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척도가 함께 사용되므로, 이 두 개념의 중복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두 척도의 각 문항간 상관관계가 높은 16개의 문항이 제거된 총 18개 문항으로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이다.

4. 결혼안정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안정성 척도는 Booth와 그의 동료들(1983)이 만든 Marital Instability Index(MII)이다. MII는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가를 묻는 정서적·인지적 평가에서 부터 실제 이혼 제안이나 별거 경험등 행동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1개 문항은 내용이 중복되어 제거하고, 본 연구자가 새로이 만든 3개 문항을 첨가시켜 21개 문항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를 낮추고 각 문항과 전체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유의적이지 못한 문항 3개(부부 각자가 자신들의 결혼문제를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를 제거한 총 18개 문항으로 결혼안정성 척도를 구성하였다.

응답 범주는 Booth와 그의 동료들의 척도 반응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또는 '상당히 많이 했다'의 1점에서 '전혀 한 적이 없다'의 5점 Likert 척도).

C.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의 alpha 계수로서,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척도의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우선 예비조사 前에 자아분화의 가척도를 작성하여 교수 5명에게 가척도의 문항들이 자아분화 각 하위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에 반응하도록 하여 내용 타당도를 구하였다.

구인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우선 자아분화 척도에

대해 주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개의 요인(요인 I : 정서적 단절, 요인 II : 정신내적 분화, 요인 III : 삼각화, 요인 IV : 대인관계적 분화)이 나타났다. 또한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 척도에 대해 주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밀감과 자율감이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척도에 대해 주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개의 요인(요인 I : 자신에 대한 보상 차원, 요인 II :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분화 척도,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의 구인타당도가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척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제시된 하위개념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준거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를 구하기 위해, 임상집단으로 이혼을 상담하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한 여성 17명(표집상의 어려움으로 임상집단에서 남성을 표집하지 못했음)을 선정하고, 4개의 척도들이 일반집단(여성 229명만을 타당도 분석에 사용)과 임상집단을 판별해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척도들에 대한 두 집단의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분화수준($t=2.59, p<.05$),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t=2.77, p<.01$), 결혼만족도($t=10.92, p<.001$), 그리고 결혼안정성($t=14.91, p<.001$)척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아분화,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

<표 1> 척도의 신뢰도 (Cronbach의 alpha계수)

척도	문항	일반집단			임상집단(女) (N=17)
		전체 (N=458)	男 (N=229)	女 (N=229)	
자아분화	51개	.91	.92	.91	.79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	28개	.94	.95	.94	.95
결혼만족도	18개	.93	.93	.93	.88
결혼안정성	18개	.94	.93	.94	.72

당도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V. 분석결과 및 논의

D.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이 제거되고 수정·보완되어 본 조사에 사용될 척도들을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3년 12월 15일-1994년 1월 10일까지 결혼지속년수 10년까지의 부부 300쌍(600부)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한편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이혼을 상담하러 온 여성들 35명에게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다. 일반집단에서는 532부, 임상집단에서는 3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결혼지속년수가 10년을 초과했거나 현재 결혼상태에 있지 않거나 부모가 둘 다 사망한 설문지를 제외시켜 일반집단 458부(229쌍), 임상집단 17부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중다범위검정, 단순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로, 척도들의 타당도는 요인분석과 t검증을 적용시켰다.

A. 분석 결과

1.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우선 부부 각각의 자아분화수준 점수에 따라 부부 집단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남편과 부인의 자아분화수준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남편은 평균이 3.56이었고, 부인은 3.46를 나타내었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 집단을 분류하고 이러한 상·하 집단을 함께 결합시켜 자아분화수준의 4가지 부부 집단을 제시하였다. 분석은 부부를 단위로 하여, 남편과 부인의 자아분화수준이 모두 높은 I 집단의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30.6%),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이 모두 낮은 IV 집단은 25.8%, 남편의 자아분화수준은 낮고 부인은 높은 III 집단은 22.2%, 남편의 자아분화수준은 높고 부인은 낮은 II 집단은 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의하면 자아분화수준에 따라 남편($F=15.84, P=.001$)과 부인($F=11.68, P=.001$)의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는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이 모두 높은 I 집단,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II, III 집단, 그리고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이 모두 낮은 IV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부인의 결혼만족도에서는 I, III 집단간, 그리고 II, III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차이(229쌍)

부부집단	빈도	남 편			부 인		
		평균	F값	Duncan's	평균	F값	Duncan's
I	70	4.46	15.84***	A	4.26	11.68***	A
II	49	4.25		B	3.89		B
III	51	4.10		B	4.09		A B
IV	59	3.81		C	3.64		C

*** $p<.001$

(표 3)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결혼안정성 차이(229쌍)

부부집단	빈도	남편			부인		
		평균	F값	Duncan's	평균	F값	Duncan's
I	70	4.87	17.73***	A	4.75	13.11***	A
II	49	4.73		A B	4.35		B
III	51	4.65		B	4.60		A
IV	59	4.39		C	4.25		B

***p<.001

2.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

〈표 3〉에 의하면 자아분화수준에 따라 남편(F=17.73, P=.001)과 부인(F=13.11, P=.001)의 결혼안정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남편의 결혼안정성에서는 I, II 집단간, II, III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인의 결혼안정성에서는 부인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I, III 집단과 부인의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II, IV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2〉와 〈표 3〉에 의하면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이 모두 높은 I 집단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이 모두 낮은 IV 집단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설 1-1〉 - 〈가설 1-4〉는 지지되었다.

3. 부부의 性別에 따른 자아분화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편이 24%, 부인이 11%로 나타났다. 남편은 삼각화 현상이 적게 일어날수록, 정신내적 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경향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인은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경향이 적을수록, 정신내적 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4. 부부의 性別에 따른 자아분화수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표 5〉에 의하면 자아분화수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편의 영향력은 17%, 부인은 15%로 나타

(표 4) 자아분화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남편 N=229; 부인 N=229)

독립변인: 자아분화 하위 요인		종속변인: 결혼만족도		
		b	SE	β
남편 (부인)	정신내적 분화	.21 (.21)	.06 (.08)	.22** (.19**)
	대인관계적 분화	-.06 (-.03)	.07 (.07)	-.06 (-.03)
	삼각화	.22 (-.01)	.06 (.07)	.24*** (-.01)
	정서적 단절	.17 (.20)	.05 (.06)	.22** (.25***)
Constant		2.13 (2.63)		
R ²		0.26 (0.13)		
Adj R ²		0.24*** (0.11***)		

*p<.05 **p<.01 ***p<.001

()의 수치는 부인의 경우임.

났다. 남편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경향이 적을수록, 정신내적 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삼각화 현상이 적게 일어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부인은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경향이 적게 일어날수록 부인의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표 5〉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대한 자아분화수준의 영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는 〈가설 2-1〉과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5.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우선 부부 각자의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 점수에 따라 부부 집단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남편, 부인 각자의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남편은 평균이 3.69이었고, 부인은 3.77을 나타내었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 집단을 분류하고 이러한 상·하 집단을 함께 결합시켜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의 4가지 부부 집단을 제시하였다. 분석은 부부를 단위로 하여, 부부의 정서적 건강수준이 모두 높은 I 집단의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30.1%), 정서적 건강수준이 남편은 높고 부인은 낮은 II 집단은 24.5%, 부부의 정서적 건강수준이 모두 낮은 IV 집단은 23.6%, 남편의 건강수준은 낮고 부인은 높은 III 집단은 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의하면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에 따라 남편($F=14.06, P=.001$)과 부인($F=9.80, P=.001$)의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남

〈표 5〉 자아분화수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

(남편 N=229 ; 부인 N=229)

독립변인 : 자아분화 하위 요인		종속변인 : 결혼안정성		
		b	SE	β
남편 (부인)	정신내적 분화	.12 (.12)	.05 (.06)	.18* (.13)
	대인관계적 분화	.01 (-.05)	.05 (.06)	.02 (-.05)
	삼각화	.11 (.03)	.04 (.05)	.17* (.03)
	정서적 단절	.11 (.22)	.04 (.04)	.20** (.33***)
Constant		3.39 (3.32)		
R ²		0.18 (0.17)		
Adj R ²		0.17*** (0.15***)		

* $p<.05$ ** $p<.01$ *** $p<.001$
()의 수치는 부인의 경우임.

〈표 6〉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차이(229쌍)

부부집단	빈도	남편			부인		
		평균	F값	Duncan's	평균	F값	Duncan's
I	69	4.41	14.06***	A	4.23	9.80***	A
II	56	4.34		A	3.96		B
III	50	4.01		B	4.06		A B
IV	54	3.84		B	3.62		C

*** $p<.001$

편의 정서적 건강수준이 높은 I, II 집단이 남편의 정서적 건강수준이 낮은 III, IV 집단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인의 결혼만족도에서는 I, III 집단간, II, III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

〈표 7〉에 의하면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에 따라 남편(F=6.12, P=.001)과 부인(F=7.14, P=.001)의 결혼안정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남편의 결혼안정성에서는 I, II 집단간, II, III 집단간, III, IV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인의 결혼안정성에서는 부부의 정서적 건강수준이 모두 높은 I 집단과 나머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6〉과 〈표 7〉의 결과에 의하면 부부의 정서적 건강수준이 높은 I 집단에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부부 모두 정

서적 건강수준이 낮은 IV 집단에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설 3-1〉 - 〈가설 3-4〉는 지지되었다.

7. 부부의 性別에 따른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4-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경우에는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16%이었으며, 부인은 영향력이 11%로 나타났다(표 8 참조).

8. 부부의 性別에 따른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

〈가설 4-2〉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의 영향력은 7%이었으며, 부인은 영향력이 10%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7〉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결혼안정성 차이(229쌍)

부부집단	빈도	남편			부인		
		평균	F값	Duncan's	평균	F값	Duncan's
I	69	4.79	6.12***	A	4.72	7.14***	A
II	56	4.73		A B	4.40		B
III	50	4.61		B C	4.51		B
IV	54	4.50		C	4.32		B

***p<.001

〈표 8〉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남편 N=229 ; 부인 N=229)

독립변인 :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		종속변인 : 결혼만족도		
		b	SE	β
남편 (부인)	Constant	.37 (.35)	.06 (.06)	.41*** (.34***)
	R ²		2.80 (2.63)	
	Adj R ²		0.16 (0.13)	
			0.16*** (0.11***)	

***p<.001

()의 수치는 부인의 경우임.

〈표 9〉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

(남편 N=229; 부인 N=229)

독립변인 :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		종속변인 : 결혼안정성		
		b	SE	β
		.18 (.28)	.04 (.05)	.28***(.33***)
남편 (부인)	Constant		4.01 (3.46)	
	R ²		0.08 (0.11)	
	Adj R ²		0.07*** (0.10***)	

***p<.001

()의 수치는 부인의 경우임.

〈표 8〉과 〈표 9〉의 결과에 의하면 결혼만족도에 대한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의 영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는 〈가설 4-1〉은 기각되었으며, 결혼안정성에 대한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의 영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는 〈가설 4-2〉는 지지되었다.

9.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5]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적용에서 제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lity)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남·녀별로 살펴보았다(지면관계상 상관관계표 생략). 그 결과 연령과 결혼지속개월수간의 상관계수가 남·녀 모두 .70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나 남·녀 모두에서 연령을 제외시켰다. 그리고 변인들 중 종교유무, 자녀유무, 부인의 취업유무, 부모님의 결혼상태, 출생순위는 명목변수이므로 가변수 처리하였다⁴⁾.

한편 상대방의 정서적 건강수준, 자아분화수준, 결혼만족도의 변인을 부부 각각의 중다회귀분석에 포

함시켜 자신의 결혼안정성에 상대방의 특성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역동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회귀식에서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의 변인이 자아분화 변인보다 먼저 첨가된 이유는 출생가족에서의 경험에 의해 개인의 자아분화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 10〉의 회귀식 I에서는 부모의 결혼상태, 회귀식 II에서는 부모의 결혼상태, 남편과 부인이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 회귀식 III에서는 결혼지속개월수, 부모의 결혼상태, 남편과 부인의 자아분화수준, 그리고 회귀식 IV에서는 부모의 결혼상태, 남편과 부인의 자아분화수준,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남편의 결혼안정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표 11〉의 회귀식 I에서는 수입에 대한 만족도, 회귀식 II에서는 수입에 대한 만족도, 남편과 부인의 정서적 건강수준, 회귀식 III에서는 수입에 대한 만족도, 부인의 자아분화수준, 그리고 회귀식 IV에서는 부인의 자아분화수준과 결혼만족도가 부인의 결혼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4) 종교유무 : 종교가 있는 경우 = 1, 없는 경우 = 0

자녀유무 : 자녀가 있는 경우 = 1, 없는 경우 = 0

부인의 취업유무 : 취업한 경우 = 1, 하지 않은 경우 = 0

부모님의 결혼상태(기혼, 별거·이혼, 사별의 3개 범주이므로 2개의 가변수로 전환) :

기혼인 경우 = 1, 그렇지 않은 경우 = 0

별거·이혼인 경우 = 1, 그렇지 않은 경우 = 0

출생순위 : 장남·장녀인 경우 = 1, 그렇지 않은 경우 = 0

〈표 10〉 남편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회귀분석

(N = 229)

독립변인	회귀식 I b (β)	회귀식 II b (β)	회귀식 III b (β)	회귀식 IV b (β)
교육수준	-.04(-.08)	-.04(-.09)	-.04(-.10)	-.04(-.09)
직업	.03(.10)	.02(.06)	.02(.07)	.03(.10)
결혼지속개월수	-.00(-.14)	-.00(-.10)	-.00(-.14)*	-.00(-.11)
수입	.00(.13)	.00(.10)	.00(.09)	.00(.04)
수입만족도	.04(.10)	.03(.07)	.03(.08)	.02(.04)
종교유무(有=1)	.03(.04)	.03(.04)	.04(.05)	-.00(-.01)
자녀유무(有=1)	-.06(-.04)	-.03(-.02)	-.07(-.04)	.01(.00)
결혼상태(결혼관계)	.24(.25)***	.20(.21)**	.22(.23)***	.17(.18)**
(별거·이혼)	-.02(-.01)	.07(.03)	.10(.04)	.13(.05)
출생순위(장남=1)	-.02(-.02)	-.03(-.03)	-.03(-.04)	-.02(-.02)
남편의 정서적 건강수준		.14(.22)***	-.01(-.02)	-.06(-.09)
부인의 정서적 건강수준		.11(.16)*	.01(.01)	-.02(-.03)
남편의 자아분화수준			.30(.35)***	.13(.15)*
부인의 자아분화수준			.20(.22)**	.12(.13)*
남편의 결혼만족도				.34(.48)***
부인의 결혼만족도				.09(.15)*
Constant	4.47	3.65	2.91	2.24
R ²	0.12	0.18	0.31	0.52
Adj R ²	0.07**	0.14***	0.26***	0.49***

*p<.05 **p<.01 ***p<.001

B. 논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이 모두 높은 I 집단에서 남편,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이 모두 낮은 IV 집단에서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Mee-Gaik(1991)의 결과와 일치하며,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이 낮을 경우 부부간 정서적 융합이 증대되어 배우자들 사이에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고 결혼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정서적 이혼상태에 까지 도달한다고 설명한 Bowen(197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미분화된 가족 자아에서 벗어나 개체화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한편 Bowen(1976)에 의하면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없으면 역기능적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설명함으로써,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낮은지 간에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역기능적 행동의 발생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수준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수준을 함께 측정하였다면 자아분화수준이 현재보다 더 유의한 변인으로 제시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자아분화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편이 24%, 부인은 11%로 나타났고, 결혼안정성에서는 남편은 17%, 부인은 1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아분화수준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고 한 Mee-Gaik(1991)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결속과 순종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표 11〉 부인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회귀분석

(N=229)

독립변인	회귀식 I b (β)	회귀식 II b (β)	회귀식 III b (β)	회귀식 IV b (β)
교육수준	-.00(-.01)	-.02(-.03)	-.01(-.02)	-.02(-.03)
결혼지속개월수	-.00(-.08)	-.00(-.00)	-.00(-.04)	-.00(-.04)
수입	.00(.06)	.00(.02)	.00(.03)	.00(.00)
수입 만족도	.13(.24)***	.12(.22)**	.11(.20)**	.03(.05)
직업유무(有=1)	-.03(-.02)	.05(.04)	.03(.02)	.02(.02)
종교유무(有=1)	-.09(-.08)	-.10(-.09)	-.09(-.08)	-.10(-.09)
자녀유무(有=1)	-.19(-.10)	-.15(-.08)	-.17(-.09)	-.10(-.05)
부모결혼상태(결혼관계)	-.08(-.07)	.07(.06)	-.05(-.04)	-.00(-.00)
(별거·이혼)	-.26(-.06)	-.13(-.03)	-.08(-.02)	-.16(-.04)
출생순위(장녀=1)	.10(.09)	.07(.07)	.07(.07)	.02(.02)
남편의 정서적 건강수준		.16(.20)**	.07(.08)	.04(.05)
부인의 정서적 건강수준		.22(.26)***	.11(.13)	.02(.03)
남편의 자아분화수준			.16(.14)	.01(.01)
부인의 자아분화수준			.23(.21)**	.15(.13)*
남편의 결혼만족도				.02(.03)
부인의 결혼만족도				.46(.56)***
Constant	4.44	3.02	2.44	1.97
R ²	0.12	0.22	0.26	0.49
Adj R ²	0.08**	0.17***	0.21***	0.46***

*p<.05 **p<.01 ***p<.001

경향은 출가하는 딸보다는 출생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아들에게 더 강요되며, 아들도 가족의 결속력때문에 본가 부모에 대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은희, 1991). 따라서 남편들이 융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적 배경에서 분화될 수 있다는 것은 결혼관계를 더 만족스럽게 이끌 수 있는 자원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자아분화수준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 모두에서 정서적 단절 요인만이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정서적 단절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부관계에 갈등이 많고 따라서 결혼 해체율도 높다고 한 Reifman(1986)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미분화된 가족 자아에서 분화되지 못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단

절하기 위해 부모에게서 벗어나려 하며, 정서적 단절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결혼생활의 불만족과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세째, 부부의 정서적 건강수준이 모두 높은 I 집단에서 남편,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이 가장 높고, 정서적 건강수준이 부부 모두 낮은 IV 집단에서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가족에서의 경험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Couillard(1990), Cunningham(1991), Forrest(1991), 유은희(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부부 각자가 출생가족에 대해 정서적 건강수준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결혼관계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네째,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편이 16%, 부인이 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표현적인 역할과 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게 교육시키는 반면 남성은 어려서부터 독립심을 조장시키므로, 출생가족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고 주장한 Gilligan(1982)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性に 크게 좌우되지 않고 자녀에 대한 강한 일체감으로 자녀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반면 자율성 발달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는데(유은희, 1991), 이런 부모-자녀관계는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특히 아들에게 더 강조된다. 또한 남편 출생가족과의 관계가 자녀들의 생식가족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므로(이영희, 1987), 친밀감과 자율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격려시킨 출생가족에서 자란 아들일수록 결혼생활에 더 만족해 할 수 있다.

다섯째, 정서적 건강수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편이 7%, 부인이 10%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수치만 본다면 결혼안정성에 대한 정서적 건강수준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 Couillard(1990)의 결과를 지지하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서처럼 크다고 할 수 없다.

여섯째, 결혼안정성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편 부모가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부인은 자신의 자아분화수준과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은 부인의 정서적 건강수준에 의해, 남편은 자신과 부인의 정서적 건강수준에 의해 결혼적용이 결정된다고 주장한 Couillard(1990)의 연구와 일치한다. Couillard(1990)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부인의 출생가족이 남편가족보다 생식가족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남편의 출생가족이 부인가족보다 생식가족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기 때문에 부인이 자신의 출생가족과의 관계에서 건전하게 분화될수록 출생가족과 융합이 적고 따라서 자신이 형성한 부부관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

다. 그리고 남편 뿐만 아니라 남편의 출생가족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남편의 결혼안정성에 부인의 특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부 모두에게서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춘애·박성연(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특히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보다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부인들이 남편들보다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정도나 결혼생활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부인이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해 하느냐가 계속 결혼생활을 지속하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표 10>과 <표 11>의 회귀식 IV에 의하면 자아분화수준만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두 개념의 특성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즉 출생가족에 대해 정서적 건강수준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가족임을 뜻하고, 건강한 가족은 구성원들의 건강한 분화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아분화수준 자체가 출생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은 남편과 부인의 제 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데, 남편의 정서적 건강수준과 자아분화수준간의 상관계수는 .62이었고 부인의 경우는 .60으로 두 개념이 서로 정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편 부모가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을 때 남편의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Lang와 Brody(1983)에 의하면 부모가 나이가 들어 의존성이 증가하면 대부분의 성인 자녀는 배우자, 자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다 하더라도 노부모 부양에 힘을 기울인다고 한다. 즉 남편 부모가 결혼관계를 지속하면 아들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덜 의존하게 되므로, 아들은 출생가족과 분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출생가족에 대해 정서적 건강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결혼 생활을 더 만족스럽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높았다. 따라서 출생가족에서의 경험이 차후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대전이 이론이 입증되었다.

둘째, 자아분화수준과 부부의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이 서로 관계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자아분화가 덜 성취될수록 새로운 부부관계 형성 및 유지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자아분화가 성취될 필요성을 강조한 Bowen의 자아분화이론이 일반가족 집단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남편들이 부인들보다 출생가족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딸보다 출생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아들에게 기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친밀감과 자율감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양육하며, 융합된 관계에서 벗어나 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들이 차후 결혼생활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네째,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서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예언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의 영속성을 결혼 성공의 최대 지표로 간주하던 우리나라도 결혼관계에서의 만족에 의해 결혼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출생가족에서의 경험은 자녀의 결혼생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출생가족과 생식가족에서 적절한 정도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관계를 더 만족스럽게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제까지 임상가족을 중심으로 적용되었던 출생가족의 영향력과 자아분화 개념이 일반가족의 발달 연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해준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아분

화수준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도 함께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집단의 대규모 일반부부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부간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때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치료, 가정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미숙·김명자(1990).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71-183.
- 2) 김태현·이성희(1988). 도시주부의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일 연구. *논문집(성신여대)*, 211-228.
- 3)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인구통계연보(1991). *대한통계협회*.
- 6) 진춘애·박성연(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81-96.
- 7)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 Bowen의 가족 체제이론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최연실(1988).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Amato, P. R., & Booth, A.(1991). Consequences of parental divorce and marital unhappiness for adult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Forces*, 69, 895-914.
- 10) Booth, A. & Edwards, J. N.(1989). Transmission of marital and family quality over the generations: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 and unhappiness. *Journal of Divorce*, 13(2), 41-58.
- 11) Booth, A., Johnson, D. R., & Edwards, J. N.

-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87-394.
- 12)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M. Jr.(Eds.), *Family Therapy:Theory and Praticce*. New York : Gardner Press.
- 13) _____(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Jason Aronson.
- 14) Bray, J. H., Williamson, D. S., & Malone, P. E. (1984).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 Manual*. Unpublished document.
- 15) Couillard, G. C.(1990).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of-orig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16) Fine, M.(1988).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health on family of origin to levels of state and trait anxiety. *Family Therapy*, 15, 51-57.
- 17) Garfinkel, H. N.(1980). *Family system personality profile:An assessment instrument based on Bowe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18)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 19) Heaton, T. B., & Albrecht, S. L.(1991). Stable unhappy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747-758.
- 20)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21) Huber, J., & Spitze, G.(1980), Considering divorce:an expansion of Becker's theory of marital in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 75-89.
- 22) Kear, J.(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23) Lang, A. M., & Brody, E. M.(1983).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daughters and help to their eld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24) Mee-Gaik, Ng.(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y like, healthy unlike, unhealthy like, unhealthy unlik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25) Reifman, A.(1986). *Emotional cutoff and the qualities of intimate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 26)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27) Skolnick, A., & Skolnick, J. H.(1980). *Family in transition*. Boston:Little, Brown and Company.
- 28) Wilcoxon, S. A., & Hovestadt, A. J.(1983). Perceived similarity in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dyadic adjustment:A comparison across year of marriage. *Family Therapy*, 12, 165-174.